

마늘 바이러스의 檢定植物에 對하여

羅 璞 俊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Local Lesion Hosts for a Garlic Virus

La, Yong Joon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2. 7. 8 접수)

數回에 걸쳐 全國의 主要 마늘栽培地帶를 調査한結果 現在 우리 나라에서 栽培되고 있는 마늘의 거의全部가 투부녀 고자이크 바이러스病(Streak mosaic virus) (그림 1)에 慢하게 걸리고 있는 것을 觀察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마늘이 莖蕓繁殖作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莖蕓繁殖器官인 마늘의 鱗片을 通해 오랜歲月에 걸쳐 繼代傳染을 해온 結果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마늘은 이러한 바이러스病의 崇禦의이 教害 때문에 每年 몇種의 退化現象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防止하기 위한 適切한 對策이 要望되고 있다. 마늘 바이러스病의 研究를 위해서는 첫째로 마늘에 發生하는 바이러스에 對한 適當한 檢定植物이 要請되는 데, 아직까지 이러한 檢定植物이 發見되지 않아 마늘 바이러스病은 오래전부터 빅에 부탁쳐 왔다. 마마

서 우선 우리나라 마늘의 거의 全部가 感染되어 있다시피한 투부녀 고자이크 바이러스의 局部病斑檢定 植物 (local lesion host)을 찾을 目的으로 20餘種에 達하는 草本性 바이러스 檢定植物에다 汁液接種을試圖해 보았다. 그結果 *Chenopodium quinoa*에는 接種한지 10~12日 만에, 그리고 *Chenopodium amaranticolor*에는 接種한지 12~13日 만에 局部病斑이 나타났다. (그림 2) 特히 接種方法에 있어서 마늘일의 摧汁液으로 接種하였을 때 보다 마늘일을 2~3겹 낭저, 고운 sand paper 上에 여러 차례 문질러서 直接接種하였을 때 接種效果가 더욱 좋았다. 우선 타늘에 發生하는 바이러스의 適當한 檢定植物이 發見 되었음을 報告하며 仔細한 結果는 退後 發表키로 한다.



Fig. 1. Symptom of streak mosaic on garlic lea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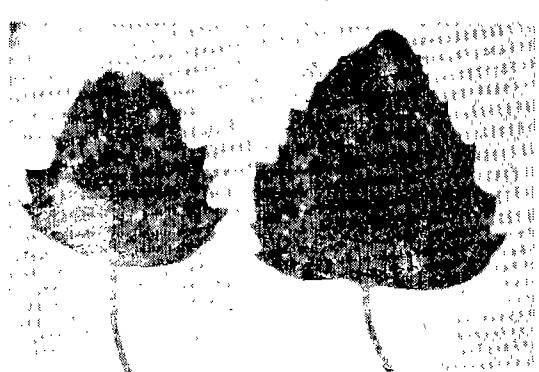


Fig. 2. Local lesions on *Chenopodium quinoa* (left) and *Chenopodium amaranticolor* (right).